

111퍼센트의 인기작 랜덤다이스, 몰로코와 모바일 마케팅 손잡아 매출 14% 증가



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2015년 설립된 게임 스타트업으로 국내 캐주얼 장르 게임을 선두하고 있는 주역이다. 111퍼센트 대표작으로는 랜덤다이스, 와일드테이머, 타워브레이커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랜덤다이스는 대형 게임사들의 공고한 벽을 허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장르 순위 10위 내 당당히 자리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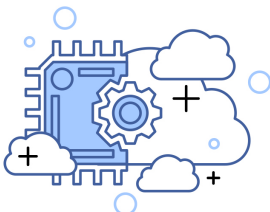
도전 과제

글로벌 매체 확장

몰로코와 협업하기 전 111퍼센트는 기존 소수 매체들에 더하여, 효율이 높으면서도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다.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란 점에서, 공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기존 채널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한 대안으로서 매체 확장이 요구 되기도 했다.

몰로코와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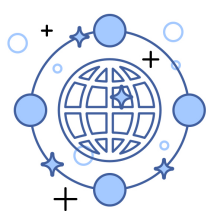
수차례에 걸친
머신 최적화 과정



광고 소재 효율 분석,
효율 높은 소재 제작



담당자의 모니터링으로
ROAS 극대화



추가 타겟 지역 제안
(홍콩, 독일, 프랑스)

Results



매출 및 순이익 증가

몰로코와의UA 캠페인을 통해 111퍼센트의 **랜덤다이스** 매출은 14%, 순이익은 8% 증가했다. 111는 “채널에 따로 연락을 해서 캠페인을 론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몰로코는 몰로코 솔루션 하나로 수많은 지면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담당자의 빠른 피드백을 통해 필요한 업데이트들을 지체 없이 진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했다.

글로벌 마케팅 성과 증대

몰로코를 통해 랜덤다이스는 기존 채널이 약세인 국가에서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었다. 한 국가의 경우 기존 매체들을 사용할 때 보다 약 30~40% 가량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

Client's Testimonial

““채널에 따로 연락을 해서 캠페인을 론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몰로코는 몰로코 솔루션 하나로 수많은 지면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로코를 활용해
신규 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 이주영 매니저, 111퍼센트